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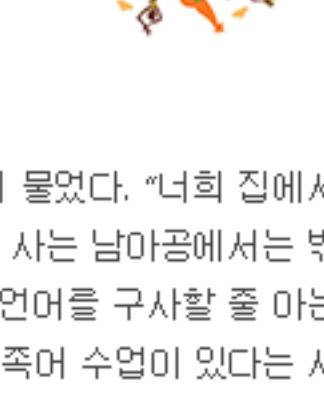
| 겨레의 창 |

아프리카의 복잡한 언어 상황 혹은 '언어 제국주의'를 넘어

_ 고인환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아프리카 대륙은 거대한 심상 지리의 일부로 인식되곤 한다. 어둠의 심연, 야생의 대륙, 기마와 질병, 종족 갈등(내전, 분쟁 등), 미개한 민족,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 쟁탈전 등의 이미지가 아프리카 대륙의 고유성을 잠식하고 있다. 외부자(특히 서구인)의 규범적 틀로 조작된 허상이 아프리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영어권', '프랑스어권', '포르투갈어권' 등 구식민 지배 국가의 언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아프리카 문학 연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영어권 문학, 불어권 문학 등 과거 식민 지배국의 언어로 문학을 정리한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의 문학사는 찾아보기 어렵다.¹⁾ 과거 식민 지배국의 언어가 여전히 아프리카의 문학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언어 지형도는 아프리카의 실제 언어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사례이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을 '타자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언어 상황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프랑스어권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프랑스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자.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50여 어족에 속한 1,0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 교육, 통신에서는 프랑스어가 공식적으로 통용되지만, 주민의 일상생활에서는 토착어나 지방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지역 아프리카인의 5~10% 정도만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이마저도 공식 담화나 몇몇 법령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²⁾ 이 지역의 언어 사용 실태는 다중적이다. 교육과 행정에 사용되는 공식어인 프랑스어는 일부 도시 엘리트들이 사용한다. 다양한 부족들 사이의 소통은 초지역적인 아프리카어, 즉 교통어³⁾가 주로 담당한다. 대다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지역적 토착어를 사용한다.



연구년으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머물 때의 일이다. 거기서 만난 한 친구가 느닷없이 물었다. "너희 집에서는 무슨 언어를 사용하나?" 의도를 몰라 당황하는 나에게 그는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사는 남아공에서는 밖에 나와서 사용하는 말과 집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러 부족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 친구는 케이프타운 의과대학에서 부족어를 강의하고 있었다. 의대 교과 과정에 부족어 수업이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 국어가 하나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의아해했다. 이어서 그가 물었다. "그럼 북한 사람들과는 무슨 언어로 소통하느냐?"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에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내친김에 그에게 들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기로 하자. 1994년 정권을 잡은 만델라는 다양한 부족의 대표들을 초청해 소통하며 국민 대통합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때 한 소수 부족의 장미 만델라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직접 오라는 것이었다. 만델라는 통역사를 대동하고 그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부족어를 익히지 못한 만델라에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 후 만델라는 다양한 부족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현재 남아공은 11개의 언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식민 제국의 언어인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제외하면 줄루어, 코사어 등 9개의 토착어가 공식어로 지정된 셈이다. 모어(母語) 사용 비율은 줄루어, 코사어, 아프리칸스어 순이라 한다. 이는 남아공의 민족 구성 비율과 일치한다. 영어는 모어 사용 비율이 높진 않지만,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통용되며 정부와 언론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남아공의 시도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효과적인 언어 정책의 실행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수십 년간 식민 지배 언어에 의존해 온 언어 정책은 모어와 국경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대다수 아프리카 나라들의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영어와 프랑스어 등 서구의 언어는 일부 도시 인구에 한정된 소수 엘리트 층의 특권적 언어로 전락했다. 지배층이 강요한 이러한 외국어들은 모어(토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다수가 문맹인 아프리카 주민에게 영어나 프랑스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외국어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에 동의할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 혹은 신분 상승이나 성공의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식민주의를 경험한 공동체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언어는 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언어 생태학자 루이-장 칼베의 '언어적 상부구조의 전복'을 동반하지 않는 모든 명목상의 해방은 피지배 언어를 말하는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지배 언어를 사용했고 계속 사용하는 사회 계층의 해방(『언어와 식민주의』)이라는 전언을 되새기며 글을 맺는다.



| 고인환 |

문학평론가. 2001년 <중앙일보> 평론 등단. 저서로는 「공감과 곤혹 사이」(2007), 「정공법의 문학」(2014), 「문학, 경계를 넘다」(2015), 번역서는 「프랑스파의 향기」(2019)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경희대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를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지냈다.

| 새로 찾은 겨레말 |

‘쪼로로기’와 ‘쪼르래기’

_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부장

그 짬에 석미형은 뱀을 붙잡아 책가방에 넣고 **쪼로로기**를 닫은 다음 시치미를 따며 교실을 나왔다.

《최홍일: 동년이 없는 아이》

은희 어머니는 수선을 떨면서 트렁크의 **쪼로로기**를 열고 과자며 껌이며 우유사탕이며를 잡히는대로 꺼내 일일이 권했다. 《정호원: 진실한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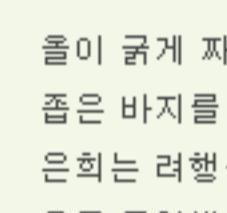
돈가방에 돈을 넣고 **쪼르래기**까지 알뜰하게 잠근 다음 녀자는 매대안에서 백사를 넣은 술병을 꺼내 여 그의 앞에 놓았다. 《허련순: 도시의 상흔》

심애란이는 양복에 **쪼르래기**가 달린 보라빛자켓마저 벗고 누웠었다. 《리동렬: 고요한 도시》

중국 조선족 동포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쪼로로기’와 ‘쪼르래기’는 표준어나 문화어의 ‘지퍼’나 ‘쟈크’의 순우리말이다. ‘쪼로로기’나 ‘쪼르래기’는 형태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 보이나 그 말 바탕은 서로 다르다. ‘쪼로로기’는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흉내말 ‘쪼로록’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며([쪼로록+-이]), ‘쪼르래기’는 ‘작은 물체들이 한 줄로 매우 고르게 잇달아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흉내말 ‘쪼르르’에 ‘-아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쪼르르+-아기]). 또한 ‘쪼로로기’와 유사한 어형으로 ‘쪼르로기’도 중국 동포 작가들이 쓴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쪼르로기’는 ‘쪼로록’과 비슷한 흉내말인 ‘쪼르록’에 ‘-이’가 결합된 말이다([쪼르록+-이]).

헌데 돈보다 더 극비적이고 귀중한걸 품고 있듯 가방은 **쪼르로기**를 꼭 다물고도 성차지 않아 앙증맞게 작은 자물쇠까지 껴안고 있었다. 《윤림호: 명암의 세계》

련미는 잠바의 **쪼르로기**를 푸르륵 벗기고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리광수: 새로운 길》



표준어의 ‘지퍼’는 영어의 ‘zipper’를 그대로 들여온 말이며, 문화어의 ‘쟈크’는 영어 ‘chuck’의 일본식 발음 [チヤック]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어 ‘쟈크’는 일본어 ‘チヤック’의 첫 번째 발음 ‘チ’이 ‘지퍼’의 ‘ㅈ’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쟈크’는 지역에 따라서 자꾸, 자크, 작쿠’ 등과 같이 쓰이기도 한다.

올이 굵게 짜진 깜장 모자를 썼고, 역시 국방색 잠바를 자꾸를 턱밑까지 바싹 올려 입고, 깜장색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은희는 려행용가방의 **쟈크**를 열더니 옷가지들을 꺼내 벽 장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조선화: 최우등 졸업생》

동생 **쟈크** 좀 채워줘라. 《최인호: 처세술 개론》

“야, 이 잡것아, **작쿠** 안 잡궈!” 《박범신: 물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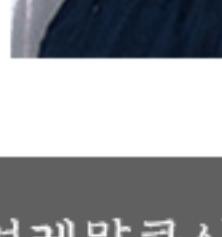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사회에서 유일하게 외래어 대신 고유어를 사용하는 언어사회는 조선족 언어사회뿐이다.

‘쪼르래기’는 북한 동포의 언어사회에서도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진아는 학습장들을 가방에 넣자 자크의 **쪼르래기**를 쭉 당겨 솜씨있게 채웠다. 《백의남: 넓은 교실》

북한의 작가 백의남의 소설의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쪼르래기’가 ‘쟈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의 소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동포의 언어사회에서 ‘쪼르래기’는 ‘쟈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조그만 장치를 의미한다. 이 ‘쪼르래기’가 ‘쟈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뿐만 아니라 ‘쟈크’ 자체를 의미하는 말일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지금은 남북공동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러한 머휘들의 의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다. 하루빨리 남북공동회의가 열려 이러한 머휘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중국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순우리말 ‘쪼로로기’나 ‘쪼르래기’를 남북한의 언어사회에서도 외래어인 ‘지퍼’나 ‘쟈크’ 대신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 이길재 |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박사, 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호남문화정보시스템 책임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2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전미지대의 언어 변이 연구>, <전라방언의 중방언권 설정을 위한 인문지리학적 접근> 등이 있고, 저서로는 「언어와 대중매체」,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등이 있다.

| 남녘말 북녘말 |

사람들이 바보라고 ‘몰아주는’ 온달 장군

_ 미현주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한동안 SNS상에서 ‘외모 몰아주기’가 유행이었다. 친구들과 셀카(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한 사람만 멀쩡하게,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엉기적이거나 무스꽝스럽게 표정을 지어 외모를 돌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외모 몰아주기이다. 외모를 몰아줄 때는 보통 교대로 한 사람씩 외모를 뽐낼(?)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다음엔 유정이 몰아주자” 같은 표현도 심심치 않게 쓰이곤 한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생략하고 “다음엔 유정이 몰아주자”라는 말을 북측 사람이 듣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오해가 발생하여 상황이 꼬일 수도 있다. 북측에서는 ‘몰아주다’를 “괴롭히다, 따돌리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증보)에서 ‘몰아주다’는 각각 아래와 같이 풀이되고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웹) | 《조선말대사전》(증보) |
|---|---|
| 몰아주다 [동사] | 몰아주다 [동사] |
| ① 여러 번에 나누어 줄 것을 한꺼번에 주다. 예) 사장이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몰아주었다 . | ① 마구 나무라며 핀잔을 주거나 추궁하다. ② 여럿이 하나를 공격하거나 따돌리다. 예) 그는 동무들이 입을 모아 금옥미를 몰아주는 일이 어쩐지 마음에 거슬리고 불쾌하였다. (장편소설 《령마루》) |
| ②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한 사람에게 모아 주다. 예)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인사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여전했다./우리가 받은 품삯을 생활이 어려운 친구에게 몰아주었다 . | |

남측의 ‘몰아주다’는 주로 받는 횟수나 받는 사람을 하나로 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또 무엇을 몰아주는가, 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따라 그 행동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외모 몰아주기’나 위의 사전 용례 중 ‘친구에게 품삯을 몰아주다’ 등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사전의 ‘지역 인사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북측의 ‘몰아주다’는 누구를 몰아주더라도 부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¹⁾ 사전에 풀이된 의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뭉치의 용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²⁾

ㄱ. 이렇게 착하기에 순사놈을 엎어줘도 아이들이 용준미를 **몰아주지** 않는 것 같다. **몰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잘 노는 것 같다. 《강명희: 쌈바위》(북)

ㄴ. 당신을 담당한 구경찰서 대공과의 홍형사 있잖아요? 홍형사의 막내아들이 창완이하구 한반이거든요. 그 애가 창완이를 **몰아주는 왕따**의 두목이라는군요. 《홍석중: 폭풍이 큰 빛을 펼친다》(북)

ㄷ. 평강공주님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몰아주는 온달**을 향군으로 맞아 나라의 장수로 키우지 않았나 이까. 《김호성: 흥망》(북)

(ㄱ)-(ㄷ)은 모두 북측 용례로, 주로 《조선말대사전》(증보)의 뜻갈래 ②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를 용례를 통해 북측에서 ‘몰아주다’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ㄴ)은 배경이 서울임을 드러내기 위해 남측 표현 ‘왕따’를 빌려 쓴 덕에 ‘몰아주다’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예이다.³⁾ 다만 ‘몰아주다’의 이러한 용법이 생소하더라도, 심지어 그 의미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ㄱ)-(ㄷ)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조선말대사전》(증보)의 뜻갈래 ①과 관련된 예는 많지는 않지만 분단 이전부터 확인된다. 최정희의 《천맥(天脈)》(1940)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작가가 함경도 단천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당시 북측 지역에서만 주로 쓰이던 의미가 아닌가 한다.

“아이가 조금만 떠들른 시끄럽다 야단이구……, 남 들는데 밤낮 **몰아주구**……, 왜 당신 눈엔 개 흥만 봐세요.”

이외에도 문화어(북측 규범어)는 아니지만 양강도 지역어로 ‘몰려주다’라는 표현도 북측에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를 ‘모서리’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북측에서도 ‘왕따’와 비슷한 표현들이 여럿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북측에도 청소년들 사이의 따돌림 문제가 존재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심각성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남에서는 북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려져 받게 되는 상처는 결코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서로 다른 환경이기는 해도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마음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라도 같은 것이다. 언젠가 남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누구 하나 ‘몰아주지’ 않고 ‘외모 몰아주기’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그날을 기다려 본다. ■

| 미현주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겨레말 소식 |

서울시 시민청 홍보관 운영



지난 11월 26일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이 서울시 시민청에 개관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과 남북 언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게임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 도서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도 북한 사전, 교과서, 동화책 등을 접할 수 있다.

편찬사업회는 홍보관을 통해 <<겨레말큰사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홍보관 운영 시간**
- 매일 10:00 ~ 18:00
- * 법정 공휴일 및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관

[1] 2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이』 출판

지난 12월 20일, 편찬사업회는 남북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이』를 출판했다.

편찬사업회는 2017년부터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어휘』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출판한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용어2』,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어휘 의미·용법』에 이어 올해 3번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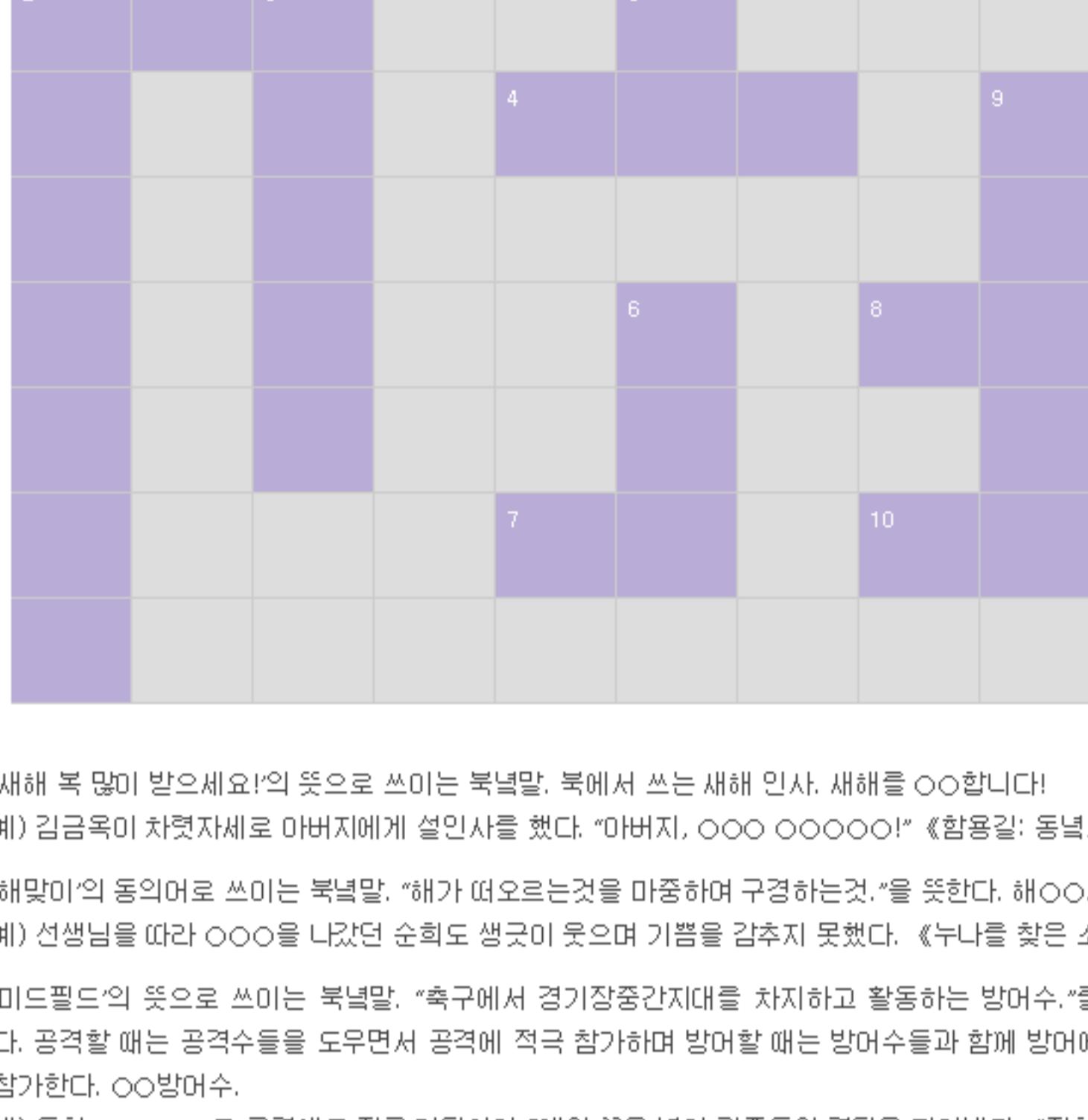
이번에 출판된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이』에서는 남북 국어대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6)에 실린 올림말을 대상으로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어휘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설했다.

또한 <한글맞춤법>과 <조선말규범집>을 토대로 표기 차이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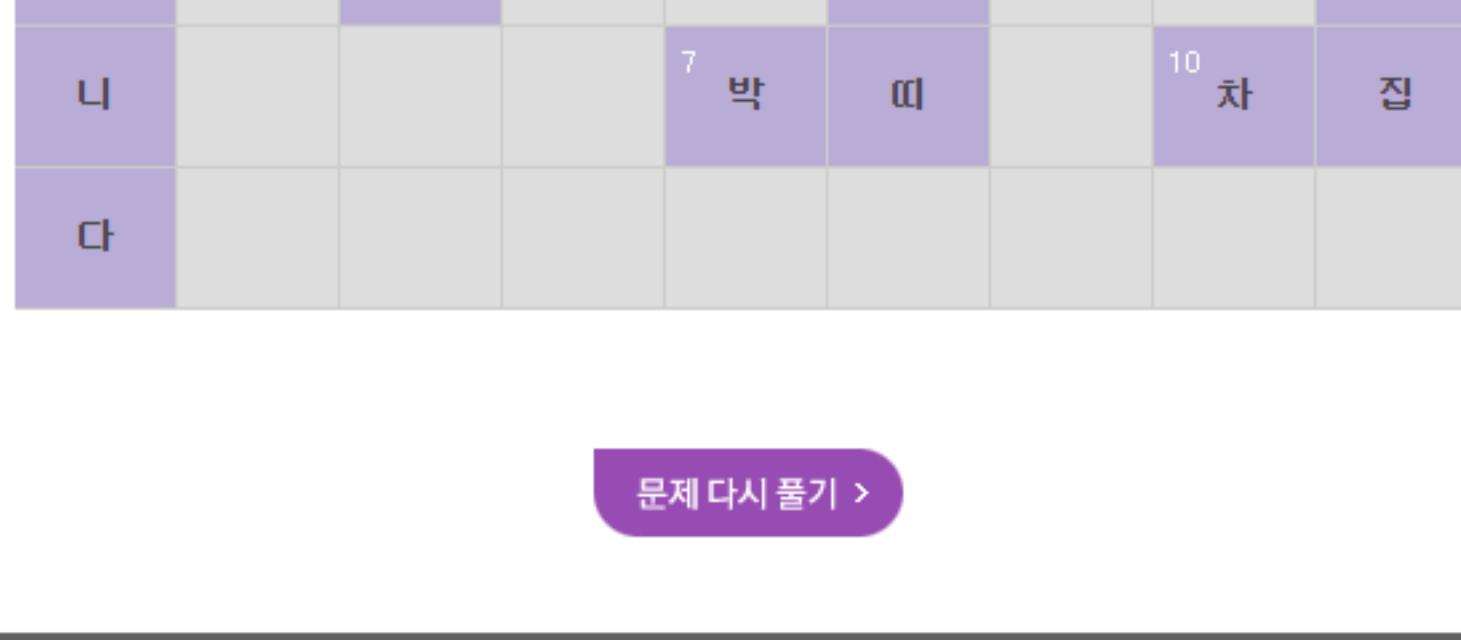
앞으로도 편찬사업회는 사전 편찬 성과를 활용하여 남북 언어 대중이 서로의 언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1 [2]

| 겨레말 날말 풀이 |



- 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북에서 쓰는 새해 인사. 새해를 ○○합니다!
예) 김금옥이 차렷자세로 아버지에게 설인사를 했다. "아버지, ○○○ ○○○○○!" 《함용길: 동녘노을》
- ② '해맞이'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해가 떠오르는것을 마중하여 구경하는것."을 뜻한다. 해○○.
예) 선생님을 따라 ○○○을 나갔던 순희도 생긋이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누나를 찾은 소년》
- ③ '미드필드'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축구에서 경기장중간지대를 차지하고 활동하는 방어수."를 뜻한다. 공격할 때는 공격수들을 도우면서 공격에 적극 참가하며 방어할 때는 방어수들과 함께 방어에 적극 참가한다. ○○방어수.
예) 특히 ○○○○○로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여 3개의 꼴을 넣어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장철유 외: 푸른 잔디우에서》
- ④ '식목일'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나무를 심는것으로 뜻깊게 기념하는 명절."을 뜻한다. 식수○.
예) 승용차가 지나가는 산릉선에서는 ○○○을 맞으며 군인들이 나무를 심고 있었다. 《삼봉풍경》
※ 남의 식목일은 4월 5일, 북의 식수절은 3월 2일로 날짜도 차이가 있다.
- ⑤ 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알맞은 낌새나 형편."의 뜻으로 쓰인다. 짬○.
예) 국세필이도... 어떻게 하면 상대편의 《진》을 《포위섬멸》 할 《패》를 쓸가 하고 ○○를 노리고 있었다. 《리유근: 관북의병장》
- ⑥ '반창고'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의학》 고약이나 그밖의 불대솜을 살갗에 붙이는데 쓰는 물건."을 뜻한다. 불임○.
예) 마늘 한쪽을 얇게 썰어 뽕드라지우에 놓고 ○○○를 불여놓는다. 《민간료법몇가지》
- ⑦ '안전벨트'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체나 동체 또는 어떤 기구에서 가슴이나 허리에 띠는 띠."를 뜻한다. 동의어 안전띠, 박○.
예) 비행기는 천천히 선회를 했으나 좌석 ○○가 팽팽해 질 정도로 몸이 쓸렸다. 《푸른산악》
- ⑧ '돼지비계'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돼지비계>를 달리 미르는 말."을 뜻한다. 흰○.
예) 식물이나 물고기의 지방은 좋지만 동물성지방 특히 ○○미 많은 고기는 나쁘다. 《생활과 건강장수》
- ⑨ '아파트'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층수가 많고 높이 지은 살림집."을 뜻한다. 동의어 고층주택, ○○살림집.
예) 나라에서는 풍차 수려한 대동강이 바라보이는 좋은 ○○○○○에 보금자리를 정해주었다. 《나의 가정이야기》
- ⑩ '찻집'의 북측 표기. "차물같은것을 파는 집."을 뜻한다. 동의어 차점, 다방, 다점, ○집.
예) 세 학자는 해후의 기쁨과 안부를 서로 담담히 나누며 한동안 떠들썩하다가 ○○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번째 기자회견》

정답확인 >

문제 다시 풀기 >